

고흥·보성·완도·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전남 21개 시·군 지정 전국 최다...특별교부금 총 1352억 확보
장흥군만 특구 미신청...27개 학교 관계자 ‘무관심 행정’ 비판도

고흥·보성·완도·진도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장흥을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것으로, 장흥지역 27개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특구 미신청으로 인한 교육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무관심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특구’ 남발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을 진행할 대상으로 이들 4개 군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전남에서는 기존 17개 시·군을 포함해 모두 2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 중심의 교육혁신 시범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질 개선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선정된 시·군에 최대 30억원 이내의 특별교부금을 4년 간 지원해 주는데, 전남도는 지난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1170억원(5년간)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182억 원(4년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특히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시·군, 시·군 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모델을 발굴하고 세부 예산 지원 계획 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고흥군의 경우 스마트팜, 드론, 우주항공 특화산업,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교육모델을 추진키로 했고 보성군은 차(茶)산업, 명문고 육성 모델을, 완도군은 해양 치유, 글로컬 해양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진도군은 보배섬 문화·예술·관광, 해양·생태교육, 작은학교 살리기, 정주·생활 인구 활성화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교육발전특구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해당 교육지원청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10억원 대 국비 지원이 가능한 특구 신청조차 하지 않은 데 따른 비판이 적지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이 전국을 선도하는 교육 모델 지자체라는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 지역,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중심의 생태계 구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예비승무원들 호캉스 체험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가 7일 전공 체험 행사 ‘Dreamwing Wings 예비승무원대회’를 열고 참가한 예비수험생들이 객실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수시모집(9월 8~12일)을 앞두고 마련된 학과 체험 프로그램 ‘호캉스’의 일환으로, 예비 수험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진수 기자 jeans@

‘고흥·함평·곡성’ 생활인프라·정주여건 개선...공모사업 선정

국비 57억 확보...고흥 녹동항 주차타워·곡성 옥과현 야간경관 조성 등

전남도가 7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역 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서 고흥, 함평, 곡성군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5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도양(愛) Parking & 休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25억원을 확보, 녹동항 인근에 연면적 2380㎡, 166개 주차면을 갖춘 3층 짜리 주차타워를 조성한다. 녹동항은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명소지만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

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와 교통환경 개선, 관광객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은 ‘월야면 빛그린로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25억원)에 선정, 함평 빛그린산단 주 출입도로인 월야면 소재지부터 산단 입구 구간 0.5km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곡성군은 ‘옥과현 모두의 객사 프로젝트’ (국비 7억원)가 공모사업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옥과면 소재지 중심로를 중심으로 열린광장, 야간경관, 역사문화 포토존 조성과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리 재생 사업을 시작한다.

옥과면은 소멸위기에 처한 구도심으로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문화·예술·야간경관 요소가 접목된 거리로 새롭게 탈바꿈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완도군 ‘치유의 예술섬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했고, ‘지역 활력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강진군, 영암군 등이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공모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시군이 함께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공모에 적극 대응해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SOC 확충과 지역 활력 회복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열차 타고 수목비엔날레로 예술 여행

전남도, 코레일과 입장·승차권 결합 상품 출시

전남도는 7일 “코레일 광주본부와 협력해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입장권과 왕복 승차권을 결합한 관광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결합상품 가격은 5만4500원으로 일반 소비자구 매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코레일톡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수목비엔

날레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전시 관람과 전남 여행을 저렴한 가격에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 민생회복 소비쿠폰 95% 지급

167만7969명 수령

전남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5%를 넘어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기준 소비쿠폰 지급률은 95%로 지급대상 177만3355명 가운데 167만7969명이 수령했다.

총 지급액은 3천4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93.6%) 보다 높은 것이다.

지급 수단별 비중은 신용·체크카드 46.2%,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9.9%,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31.3%, 선불카드 12.6%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지역민들의 수요가 높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급률이 높은 상위 6개 시군은 보성(98.0%), 해남(97.5%), 강진(97.3%), 구례(96.9%), 고흥(96.3%), 순천(96.1%) 순이다.

전남도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기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도민의 빠른 소비쿠폰 사용은 지역 경제의 운기를 되살리는 큰 힘이 된다”며 “본격 휴가철인 8월 중 조기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우리나라 섬 3390개...전남에만 2018개

첫 공식 현황 발표

우리나라 섬은 3390개라는 통계가 나왔다. 전남의 섬은 2018개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유인섬은 모두 480개로 최종 확인됐다. 무인도서는 2910개로 조사됐다.

정부가 섬 현황을 공식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

으로, 진흥원은 행안부·해수부와 함께 각 부처,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관리하던 섬 현황 및 데이터 혼선을 바로잡아 ‘2025년 유인섬 현황조사’ 결과를 내놨다.

전남은 2018개의 섬을 보유, 섬이 가장 많은 지역(유인섬 277개·무인도서 1741개)으로 나타났다. 전국 섬의 59.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남지역 섬 인구는 15만 5929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남 555개(유인 80개·무인 475개), 충남 285개(유인 37개·무인 248개), 인천 192개(유인 40개·무인 152개), 전북 130개(유인 25개·무인 105개) 등의 순이었다.

국내 섬 인구는 81만 3475명으로 집계됐다. 경남의 섬 인구가 30만 3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완도 노화도(-320명, 7.7% 감소), 진도 관매도(-14명, 7.2% 감소) 등의 경우 높은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가 섬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했다는 게 섬진흥원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